



## 하나님과 정부 God and Government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8 년 11 월 9 일

21 세기에 살면서 첫째로 기억해야 할 구절 중 하나는 잠언 21 장의 첫 절입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믿음으로 주께 드려진 기도는 선출된 관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 예루살렘 선거

화요일엔 예루살렘 시장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후보는 두 명으로, 이스라엘 육군 출신인 보수적 기업가 니르 바르카트 Nir Barkat 와 이스라엘 메시아니크 성도들에 반하여 항쟁해온 초 정통파 메이르 포루쉬 Meir Porush 가 있습니다. (제 아들들은 바르카트의 선거 운동에 자원 참여해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동의하여,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구해 주십시오.

### 리쿠드 Likud 당

이번 주에 리쿠드 당을 전에 이끌었던 두 인물 베니 베긴 Benny Begin (전 총리의 자제)과 단 메리도르 Dan Meridor (전 법무부 장관)가 정치를 수년 간 떠나 있다가 다시 당으로 복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벤자민 네타냐후 Benjamin Netanyahu 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차기 총리직 후보들 중 선두에 있으며, 선거는 2009 년 2 월 1 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반선교 anti-missionary 위협

최근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메시아니크 지도자들이 주요 ‘반선교사’ 단체로부터 고소 위협을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보호가 임하기를, 또한 과거에 공격 당한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도한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미국 선거

저희 동역자 프랜시스 프랜지페인 Francis Frangipane 이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 일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선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뽑힌 자의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구하며, 자신을 낮추고 중보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놀랍고 강력한 방법으로 당신께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Barack Obama 의 승리는 수많은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들에게 깊은 환희를 주었습니다. 온갖 배경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의 과반수가 흑인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됨을 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맹세는 단지 국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호하는 공화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맹세는 "분열될 수 없으며 만민에게 자유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아래의 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흑인이 이 나라에서 최고 권위에 올라서게 되는 현재에도, 소망은 절망으로 묶여 있는 곳들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처럼 인종 간 치유에 대한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든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심각합니다. 경제 붕괴의 위협, 세계 곳곳의 분쟁, 그리고 신(新) 냉전의 가능성이 차기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예레미야 29:7).

오바마의 꾸준한 낙태 지지 기록은 어떤가?

저는 성령께서 낙태의 끔찍함을 계시해 주시기 전에도 수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했고, 주께서 제게 역사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새 대통령에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바마 대통령의 양심을 '급여 등급 pay grade'으로 올리사 낙태를 가증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미국이 자유주의로 돌아선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여전히 중심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조차, 유권자들은 동성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새 대통령이 유대인들을 버리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최초로 뽑은 고문직은 람 이마누엘 Rahm Emanuel 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마누엘은 매우 강경하고 영리한 시카고의 정치인입니다. 당원이긴 하지만, 그는 좌익 극단주의자가 아닌 중도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만한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친은 예루살렘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전에

이르군 Irgun 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르군은 시온주의 무장 단체로 영국령 팔레스타인에서 1931년부터 1948년까지 활동했습니다. 이마누엘이 이스라엘을 변호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람 이마누엘의 가족이 시카고 회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바락 오바마의 신념에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최초의 계획 중 하나가 민주당에 하나님과 신앙을 도입시키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당내에서 기독교에 반대했던 이들의 영향력에 맞섰으며, 민주당이 신앙이 풍성하게 존재하는 곳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전부라면, 엘리야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크나큰 은혜가 강하게 임하도록 하십시오. 모두 하나님께 이 세상을 복되고, 기도대로 실현되는 땅으로 만드실 기회를 드립니다.”

프랜시스 사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로 가보십시오.

[www.frangipane.org](http://www.frangipane.org).